

터키 대학에서의 “한국문학” 교재 분석 연구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하는 ‘현대 한국 문학사(원제: *Modern Kore Edebiyatı Tarihi*, 2017)’ 를 중심으로

유정숙(에르지예스대, 터키)

1. 터키 대학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터키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교는 세 곳이다. 1989년 앙카라 대학교를 시작으로 2000년 에르지예스 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와 2017년 한국어문학과를 개설한 이스탄불 대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세 대학의 학과 이름은 모두 ‘한국어문학과’ 이다. 이외에도 터키 내 여러 대학에서 현재 한국어 및 한국 관련 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¹

앙카라 대학교와 달리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학부 과정과 함께 한국어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²되어 있다.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터키인 교원과 한국인 교원이 있어 한국문학을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점인데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개설된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부 과정의 목표는 크게 한국어 교육 강화와 기초 한국학 교육에 있다. 실용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되, 한국학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도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에 주안을 두는 이유는 터키 사회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문학과에 입학한 대다수의 터키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도 수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에 있다. 이는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육 과정표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교과

¹ 이스탄불의 메데이엣 대학교와 앙카라의 일디림 에야짓대학, 시바스의 줌후리엣 대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대학들은 일찍부터 학과 설립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교육을 담당할 교수와 외국인 교원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문학 석사, 박사과정이 개설된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향후 그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²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2010년 가을 학기에 한국어문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터키 대학으로는 최초로 2014년 가을학기에는 박사과정을 각각 개설하였다.

과정만 보면 한국어문학과보다는 ‘한국어학’ 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³

이처럼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의 교과 과정(커리큘럼)은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 있다. 한국문학 관련 수업은 3학년때부터 수강하게 되는데 한국문학 번역연습 수업을 포함해 한 학기당 4시간(4학점)이다. 4학년의 경우는 봄학기, 가을학기 각각 2시간(2학점)씩 수강한다.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이수해야 할 학점이 총 142학점임을 감안할 때 문학 관련 강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의 상황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어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의 석사학위 논문 제목만을 일별해 봐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총 10명의 학생들의 석사 논문 중에서 민속학 1명, 어학 3명(한국어 교육 전공 포함)이며, 나머지 6명은 한국문학 관련 논문이다. 특히 한국 현대문학과 관련해서는 이문열 소설 연구, 한용운 시 연구 그리고 한국 전쟁문학 연구 논문이 각각 있다.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성격은 한국학 교육 및 연구로 나아가기/확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문학과라는 학과 명에 맞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한국어 및 한국 문학 교육이 균형 있게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한국학 전반에 걸친 전문적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터키 대학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또 다른 문제는 터키인/한국인 교원에서 한국문학 전공자 비중이 낮으며 대학에서 적합한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었다.⁴ 에르지예스 대학은 한국어문학 석, 박사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박사과정 수료자들이 현재 논문⁵을 집필 중이라 머지 않아 이들이 대학에서 한국문학 전공 강의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대학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가장 큰 난제는 바로 현지의 상황과 학습자 특징이 고려된 다양한 한국문학 저서와 자료의 부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국내에서 ‘외국인을 위한’ 이라는 표제가 붙은 한국문학 교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한국어로 쓰인 국내 교재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어로 된 한국문학 자료와 번역서의 부족은 깊이 있고 전문적인 한국문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다. 2013년 가을학기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로 에르지예스 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의 경우 처음 강의를 시작할 무렵 터키 문화와 역사, 터키인의 정서 그리

³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문과대학 내 개설된 외국어 관련 학과 명칭은 모두 외국어와 문학과로 통일되어 있다. 한국어문학과와 마찬가지로 영어영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히브리어문학과, 아르메니아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인도어문학과, 아랍어문학과로 명명한다.

⁴ 2017년에 한국어문학과를 개설한 이스탄불 대학교는 지난 가을 학기에 고전문학 전공자 한국인 교원 2명을 채용했다.

⁵ 에르지예스 대학 한국어문학과와 의 경우 연구조교를 근무하고 있는 2명의 박사 수료생이 한국문학과 관련하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고 터키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선택한 한국문학 작품들을 학생들과 강독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학 수업의 경우 작품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다.⁶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의 문화와 역사, 학습자의 특징 및 경향(문화적, 종교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⁷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터키에서 한국문학 교육과 연구를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현지어로 된 다양한 한국문학 관련 저서의 개발과 편찬(번역 포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한국문학을 번역한 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터키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관련 도서는 총 4권이다.⁸ 이 중에서 두 권은 터키에서 학위를 받은 문학 박사 오은경 교수가 저술한 것으로 <여성주의 비평: 20세기 터키-한국 소설에서의 여성>과 <터키 문학에서의 한국전쟁>이 있는데, 둘 다 한국과 터키 문학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핀 저서이다. (곡셀 튀르코쥬, 2017; 35-36) 나머지 세 권은 현재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하티제 교수의 저서들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순서	저자	서명	언어	출판사	년도
1	오은경	Feminist Elestiri Baglaminda 20. yy. Turk ve Kore Romaninda Kadin 여성주의 비평: 20세기 터키-한국 소설에서의 여성	터키어	Aydan Veb Ofset/Urun	2005/ 2016
2	오은경	Turk Edebiyatinda Kore Savasi 터키문학에서의 한국전쟁	터키어	Aydan Veb Ofset	2005

⁶ 2013년 가을학기 한국 단편소설 강독 수업에서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와 <나는 편의점에 간다> 두 작품을 선정해 터키 학생들과 읽었는데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학생들이 주인공의 상황과 심리를 공감하는 것,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에게 작품 감상과 질문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교사로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비교적 최근작인 박정애의 <청소년 단편소설들>을 터키 학생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작품 이해의 포인트와 심화 질문들은 터키 선생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후 수업을 진행했는데,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이전 수업과는 확연히 달랐고 매우 뜨거웠다.

⁷ 터키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을 가르치면서 느낀 또 하나의 고민은 문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터키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국문학은 지루하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터키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학작품을 선정한다든가, 한국문학에 대한 터키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동기를 확대할 수 있는 수업 이외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르지예스 대학교에서는 매해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서 <시 낭송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여 터키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을 널리 알리고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시화전, 한글 백일장 대회 등도 학습동기 유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⁸ 터키에서 한국과 관련한 도서의 대부분은 한국어와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와 관련된 도서는 13권이고 한국 전쟁과 관련된 도서는 21권이다.

3	Hatice Koroglu Turkozu	Modern Kore Edebiyat Tarihi 현대 한국 문학사	터키어	Likya Publishing	2017
4	Hatice Koroglu Turkozu	Kore Oykuleri 한국 단편 소설집	터키어	Yitik Ulke Yayinlari	2017
5	Hatice Koroglu Turkozu	Modern Kore Edebiyati Eser Analizi 한국 현대문학 작품 분석	터키어	출간예정 Likya Publishing	2018 봄

최근 터키에서는 한국어(교육)와 관련된 책은 활발히 출판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문학 관련 책과 자료의 출간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티제 교수가 출간한 혹은 출간 예정인 세 권 한국문학 관련 저서들은 가뭄의 단비처럼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발표문에서는 터키에서 현지어로 출간된 최초의 ‘한국문학사’ 저서이면서, 현재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3, 4학년 한국문학 수업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하티제 궤로올루 교수의 <현대 한국 문학사> 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 책의 내용 및 특징 그리고 문제점(발전적 제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로 된, 한국문학 교재의 개발 및 저술을 위한 유효하고도 실질적인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하는 <현대 한국 문학사> (하티제 궤로올루, 2017) 교재의 내용 및 특징 그리고 발전적 제안

이 장에서는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한국문학 수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대 한국 문학사> 책의 내용 및 특징 그리고 문제점과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이 책은 2012년 한국학 중앙 연구원의 한국학 진흥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해외 씨앗형 사업>에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선정되면서 개발/기획되었다. 이 책의 출간은 이 사업의 결과물이며 목표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현대 문학사 저술 외에도 한국문화와 한국 고전문학 교재의 개발 및 편찬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문화> 저서는 2014년에 로터스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되어 한류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터키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애독되고 있으며 한국 고전문학 저서도 곧 출간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 (픽셀 튀르코쥬, 2017:35)

이 책의 저자인 하티제 궤로올루 투르크오쥬(Hatice Koroglu Turkozu)는 현재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과장이면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6년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어 같은 대학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김소월의 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005년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터키어로 번역, 출간하였다. 2007년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였고 201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티제 교수는 한국에 있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터키인 교수이다.

하티제 교수의 『현대 한국 문학사』(원제: *Modern Kore Edebiyati Tarihi*)는 터키어로 쓰여졌으며 2017년 3월 터키 내에서 인문학 전문 출판사인 Likya에서 출간되었다. 터키어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저자가 이 책의 예상 독자를 한국어를 아는 터키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는 터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이 책은 앞서 언급한 대로 터키 국립 앙카라 대학에서 한국어문학과가 1989년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 세 개의 국립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지어로 된 적합한 한국문학 저서나 교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 단편소설 강독 선집이라거나 대표 작품, 시 등을 묶어 만든 자료집의 형태가 아닌 방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 문학사 기술하는 데 있어 저자의 관점이 필요한 ‘한국문학사’라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며 노고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과 특징을 좀더 살펴보자.

이 책은 보통 국내에서 출간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도서와는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가로, 세로 크기(X)를 볼 때 일반적으로 소설책이나 이론서보다도 조금 작은 편이다. 페이지 수도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10쪽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관련 도서의 경우 꽤 두꺼운 편이고 교재 안에 삽화나 그림 등과 같은 자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은 참고문헌을 빼면 200페이지 남짓의 분량이 전부이다. 그리고 책은 서문과 12개의 장, 그리고 참고문헌 목록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앞, 뒤 사진 삽입 예정]

책의 구성 및 특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이 책의 집필 의도와 목적, 특징 및 의의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저자의 서문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서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히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서문 전체 인용 예정, 터키어]

서문의 첫 번째 단락은 문학과 사회 간의 긴밀한 영향 관계를 기술하면서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1876년의 강화도 조약과 갑오경장을 조선 사회의 근대화를 향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저자는 이러한 조선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시작으로 140년 동안의 한국 문학의 변화와 근대화 국면들을 이 책에 파노라마 형식으로 담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이 터키에서 첫 번째 출간되는 한국문학에 대한 책이라는 점에 크게 의의를 두면

서 이 책의 출간을 통해 터키에서 한국문학사 분야에 대한 자료/저서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와 함께 방대한 한국 근대, 현대 문학 관련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한 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고도 토로한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 책의 의도와 목적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 책에 한국문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터키 일반인들에게 한국 문학을 시기별로 짧게나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학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일말의 해답을 얻고, 관련 자료와 문헌 등의 접근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이 책의 독자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의 중반부에는 이 책의 전체 구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한국의 현대 문학사를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끊어 연대기적으로 기술했으며 12개의 장을 시대적 특징, 소설, 시 그리고 희곡 순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현대 문학사라는 제목을 단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개화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막 거처온 2000년대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책의 가장 큰 의의와 중요한 성과로 “방대한 한국 현대문학사를 한 권의 책을 정리, 설명한 책으로 최초라는 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 자리에서 터키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가장 큰 난관으로 현지어로 된 한국문학 교재의 부재를 거론해왔으며 한국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위해서 터키어로 된 한국문학 관련 저서의 편찬을 누차 강조해왔다. 때문에 이 책은 이에 대한 저자의 노력과 열정의 산물인 셈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서문과 총 1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은 다시 2-3개의 소절로 구분된다.

<현대 한국 문학사> 의 목차 및 내용

순서 및 제목	세 부 내 용	쪽수/(분량)
1장: 19세기에 한국에 들어간 서구 문명의 영향과 갑오경장	1.1. 19세기에 한국에 들어간 서구 문명의 영향 1.2. 갑오경장	15쪽/(6장) 21쪽/(5장)
2장: 개화계몽기 시대의 문학	2.1. 시대 배경 2.2. 소설 2.3. 시 2.4. 희곡	29쪽/(2장) 31쪽/(5장)
3장: 1910년대의 문학	3.1. 시대 배경 3.2. 소설 3.3. 시	43쪽/(2장) 45쪽/(4장)

	3.4. 희곡	
4장: 1920년대의 문학	4.1. 시대 배경 4.2. <u>프로 문학</u> 4.3. 소설 4.4. 시 4.5. 희곡	57쪽/(3장)
5장: 1930년대의 문학	5.1. 시대 배경 5.2. 소설 5.3. 시 5.4. 희곡	
6장: 1940년대의 문학	6.1. 시대 배경 6.2. 소설 6.3. 시 6.4. 희곡	
7장: 1950년대의 문학	7.1. 시대 배경 7.2. 소설 7.3. 시 7.4. 희곡	111쪽/(2장)
(중략)		
12장: 2000년대의 문학	12.1. 시대 배경 12.2. 소설 12.3. 시 12.4. 희곡	195쪽/(3장)
참고문헌	참고문헌 목록 정리 <단행본, 논문 자료 순으로 기술됨>	

먼저 이 책의 목차와 제목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19세기 말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현대 문학 100년의 도정을 서술하고 있다. 현대 한국 문학의 전체적 윤곽을 소개하고 설명한 첫 번째 입문적 도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문학에 대한 책이지만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서술뿐 아니라 시대별 역사적 배경과 특징, 그리고 근대문학으로 이행되기 이전 조선시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터키 일반 독자라 할 지라도 이 책을 읽는데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였다. 또한 작가 이름과 작품 명의 경우 한국어와 터키어 로마자를 병기하고, 그 의미를 터키어로 번역해 놓음으로써 한국어를 알 지 못하는 독자의 경우에도 일차 문헌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교재

로 사용되고 있지만 진전된 한국문학 탐구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문학사라 함은 한국문학의 전체적인 윤곽을 개관하면서 역사적 흐름과 단계에 따른 주요한 문학사적 특징과 양상을 변화 및 연속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요 시인들, 소설들, 비평가들을 개별적으로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재구성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의 전체적 윤곽과 함께 단계적 특징과 연속적 흐름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특징은 다루는 시기의 방대함과 함께 시, 소설, 비평 담론을 넘어 희곡까지를 200쪽 남짓한 분량의 한 권에 책에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하다 보니 한 장에 속한 4개의 소설의 개별 항목의 분량이 2-4쪽에 그치고 그 내용도 주요 작가들과 작품 명을 배열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10년 단위로 한국 현대문학사를 기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을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 학계에서 초기에 저술된 한국문학사 책의 경우 편의적으로 10년 단위로 문학사의 시기를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기술 방법이 가지고 효용성과 편의성이 일정 부분 수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한국문학사를 기술할 때 관행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10년 단위로 그 시기를 기계적으로 잘라 기술하지만 시기별로 연속과 차이의 지점이 극명하거나 문제적이지 않다면 그럴만한 근거와 효용성을 다시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자연스러운 표현과 용어의 적합성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 한국에 들어간 서구 문명의 영향과 갑오경장”의 경우가 그러한데, 19세기 조선 사회에 미친 서구 문명의 영향과 갑오경장, 이로 인해 한국의 현대 문학의 형성과 발전을 우선적으로 외래 문명의 영향과 외래문학의 유입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용어와 관련해서는 19세기 말부터 1910년을 기점으로 하는 이 시기를 통상적으로 근대전환기, 근대계몽기, 개화기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지만 최근의 경향은 근대계몽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화계몽기란 용어는 그 이전의 표기들을 적당히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 국내에서 편찬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교재의 경우 작가의 사진이나 약력을 기술하거나 사진과 시각적 자료 등을 풍부한 편이다.

하티제 교수의 『한국 현대 문학사』 책 이후에 터키에서 앞으로 저술되거나 편찬되는 한국문학 관련 도서와 교재는 그녀의 책에 힘입어 나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티제 교수의 『한국 현대 문학사』 책을 읽고 소개하고 발전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터키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는 터키인, 한국인 교원 모두에게 매우 필요하고도 유의미한 작업일 될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 이 책이 실제 문학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며 터키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식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추후에 다른 지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